

종합·해설

한나라 전대 출마자 “호남표심 잡아라”

1만5000여명으로 늘어난 선거인단...구애 경쟁 치열

남경필 의원 오늘 광주서 기자간담회...비대위도 방문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대 출마자들의 호남 표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특히 과거 수백 명의 선거인단에 불과했던 과거 전당대회와는 달리 이번 전당대회의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 숫자가 1만5000여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대 출마자들의 ‘호남 구애’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번 7·4 전당대회에 당권 후보로 나선 ‘쇄신과 대표 주자’인 남경필(4선) 의원을 시작으로 전대 출마자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 의원은 21일 광주를 방문해 광

주·전남지역 대의원 및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권 출마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밝힐 계획이다.

작년 연말께 광주에 ‘아시아 디자인센터’ 광주지부 사무실을 개소한 남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호남 민심을 파고든 만큼 호남에서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남 의원 이외에도 전대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4선) 의원과 ‘탈 계파’를 자처한 나경원(재선) 의원·친박계 단일후보인 유승민(재선) 의원을 비롯, 뒤늦게 당권 경쟁에 가세한 원희룡(3선) 의원 등도 조만간 광주·전남을 방문해 호남 표심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비전 발표회’가 오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후보들 간 광주·전남지역 조직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나라당 당권 주자들이 호남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이 과거와 달리 1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7000명 정도이고, 대의원도 광주 170명, 전남 240명으로, 410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대 출마자들의 중요한 전략 거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 광주를 방문해 당 쇄신방안 청취와 전당대회 사전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희화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박보환·신지호·나성린·정용화 비상대책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장에서 시·도당 주요 당직자와 오찬간담회를 하고 현안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대 출마자들의 광주·전남 방문이 이번 주와 다음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 후보들도 변화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많은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20일 광주시장 구내 식당에서 광주·전남 대학총학생회협의회(의장 정중혁 호남대 총학생회장) 간부 22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강 시장에게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시제공)

“대학 학자금상환제 개선해야”

광주·전남 총학생회協 “청년신불자 양산 우려”

광주·전남 총학생회 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상환제(ICL·돈돈학자금)는 높은 변동금리 때문이다 끊임대 기간에도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취업 후에는 복리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며 “정부와 정권은 학자금상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생회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대로 학자금상환제가 시행된다면 청년 신용불

량을 양산할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의지와 대학의 자구노력이 함께 이뤄지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 협의회는 이어 “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의 1%포인트를 지원키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며,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이 광주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 대학등록금 OECD국중 3번째로 비싸

정부 장학금·학자금 대출 비율 회원국 평균에도 못미쳐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비싸고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OECD가 공개한 ‘OECD 사회 정책보고서’ 중 교육분야 내용에 따르

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정부 장학금 비율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평균인 11.4% 보다 훨씬 떨어졌고 학자금 대출 비율은 5.7%로 역시 OECD 평균인 8.8%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분 분담비율을 2000~2007년 하락세를 보여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하며 등록금 지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지만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을 가정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대선, 인물보다 정책 대결판 민주당에 유리

야권 총선과반 확보판 ‘박근혜대세론’ 분열”

민주정책포럼 토론회

내년 대선에서는 인물보다는 정책으로 맞설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대세론’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인기·김효석·강봉균 의원 등 민주당 내 관료·정책통 출신 연구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이 20일 오전 서울 여

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현정국상황과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낼 것인가가 내년 대선을 판가름하는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문제 등 복지 여건다는 이번 좌담회와 무관한 중산층의 문제로써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구 풀리뉴스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 대세론은 크게 흔들리고 범보수 진영도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시선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최인기 의원은 “총선·대선을 앞둔 올해는 중차대한 시점이 만큼 야권의 망명한 민주당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반값등록금’ 첫 단추도 못끼우나

임시국회 폐회 열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 안돼

‘5+5 정책’ 6월 처리 난망...대학구조조정안도 못내놔

6월 임시국회 폐회가 열을 앞두고 다가왔으나 ‘반값 등록금’ 정책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당장, 반값 등록금 시행의 첫 걸음인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골 건너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립대 재정 투입 방안과 연계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은 야당의 한계로 좀처럼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던 ‘5+5 정책’은 국회 교과위에서 여러 간의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5+5 정책’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복원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이자율 인하를 위해 50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등록금상환제 도입 ▲ICL 제도 개선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 ▲대학재정회계의 투명성 확보 ▲사립대 구조조정지원 등 5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을 말한다.

지난 13일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수회담 제안 이후, 일주일여 지난 20일에도 회담 개최도 결정되지 않고 있어 반값 등

록금 실현을 위한 ‘5+5 정책’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손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문제에 무릎을 맞대고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학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계와 지역 사학재단 등을 자극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이 잘못 풀릴 경우, 반값 등록금 문제가 민주당과 사학재단과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최저 임금

시간당 5410원

민주당, 인상 추진

민주당은 내년 최저임금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최고위원회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라는 취지에 부응하려면 ‘최저임금연대회의’(시민단체 모임)의 요구대로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민주당은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에 대해 노사(勞使)에 추천권·제척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 · 도시락 · 식판급식 · 성당
교회결혼식뷔페 · 야외결혼식뷔페
철수/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총천회 · 기업체 각종행사

예약 파티외식산업

본사 ☎ (062)226-0086 | H.P 010-4601-3222

www.party-food.co.kr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월 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을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0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월 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자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SI세 -80%+a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 -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042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취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 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증-4738호